

[TV]

TV 4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윤정희 "실컷 울었으니 이제 웃고 싶어요"

2일 해피엔딩으로 막 내린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의 자경 역



지칠 정도로 울고 또 울었다. 뭉친 계모 밑에서 갖은 고생 이겨내며 자라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할 때까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가까스로 결혼해 알콩달콩 산 것도 불과 1년여, 낯뜨겁거나 정답게 지냈던 시어머니가 낯아주신 어머니라기에 억장이 무너져 눈물샘이 다시 터졌다.

2일 종영한 SBS '하늘이시여'에서 윤정희(26)만큼 많이 운 사람이 있을까. 가뜩이나 극중에서 우는 장면이 많은 초반엔 연기에 대한 매운 핏까지 겹쳐 눈물을 쏟았다.

시어머니이자 친어머니를 연기한 한혜숙이 '호되게 야단쳐 피눈물을 냈다'고 털어놓았을 만큼 연기의 첫 발판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잔뜩 긴장해 혼자서 우울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언제 칭찬 받아보나' 싶어 한숨 쉬기도 했다.

"제가 가진 것에 비해 큰 역할을 맡아서 부담이 컸어요. 홈페이지 게시판을 안 볼 정도로 힘든 때도 있었죠. 그래도 촬영장에서 기죽지 않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촬영할 때 카메라 빨간 불 들어오면 떨리는 건 어느 순간 없어져서 변한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연기하느라 잊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경 역에 캐스팅되기 전엔 연기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떠나려고 했다. '이미지는 좋은데 연기를 못한다'는 얘기에 대한 생각이 '잘하는 것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굳어질 때까지 한동안 방황했다.

"연기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어를 공부할 때는 칭찬만 받았던 것 같은데 못한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흔들리는 게 싫어서 '버리고 가자'고 결심하고 일본에 학교와 기숙사까지 정했어요. 학비를 입학금이 한 달 캐스팅이 됐다는 연락이 왔죠. 그렇게 하게 된 첫 주연작이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었고 결국은 웃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시청자들에게 사랑도 답답 받았고 이제는 실컷 웃을 수 있는 밝은 역이 됐어요."

"자경이는 계모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쌍해보여서 그렇지 착하지만은 않은 인물이었어요. 강단이 있어서 어려움을 헤쳐갔고 그러면서도 많이 울었죠. 울기는 많이 울었으니깐 이제 변한 것 같은데 많이 웃을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Living TV 김현영의 여행사랑-홍콩 (오후 2시 50분). Article about travel and dining in Hong Kong.

국제보청기. Advertisement for hearing aids with contact information.

케이블·위성TV 4월

Large table listing various TV channels (YTN, MBN, KTV, etc.) and their program schedules.

PBC 광주광역시방송. Local broadcast information.

TBN 교통방송. Traffic broadcast information.

BBS 불교방송. Buddhist broadcast information.